

오피니언

월/요/광/장

양성우



프랑스 파리를 여행해본 이들은 대개 몽마르트의 물랭루즈라는 카바레에 가봤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대형의 화려한 쇼가 열리는데, 수많은 미녀들이 반라의 몸으로 섹시하게 무대를 꾸미는 곳으로 매우 유명하다. 거기다가 지금의 세대를 낳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도 즐겨 들어 다녔던 곳으로 생겨난 지 12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유흥공간이다.

그런데 그 물랭루즈의 특이한 점은 현란한 무대와 미녀들과 그곳의 연희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파리가 나치에 점령당했을 당시에 물랭루즈에서 춤추던 이들이 대부분 레지스탕스로서 반 나치 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치마폭 속에 무기를 감추어 낱알으며 정보연락처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보급품을 조달했다. 비록 소설의 신분이 아니고 할지라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거룩한 정신이 프랑스인들을 감동시켰으니, 그런 까닭으로 물랭루즈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하지 않은가. 그리고 프랑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파리를 찾는 사람들도 너도나도 물랭루즈 쇼를 보겠다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 내가 여기에서 파리의 물랭루즈를 거론하는 것은 그곳을 설명하는데 뜻이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남들이 잘 모르는 나 혼자만의 물랭루즈가 있기 때문이며, 그곳에서 일하던 이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물랭루즈, 그 집은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시민회관(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던 '향아리집'이라는 이름의 술집이다. 그 집은 간판도 없는 나지막한 기와집으로, 방마다 앉은뱅이 술상이 놓여있는가 하면, 저녁이면 그럭저럭 낮익은 술꾼들이 너나들이로 인심 쫓겨 술을 사고, 또한 돈이 없으면 외상을 달고, 그것마저 갚지 않아도 그 누가 갚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당시의 엄혹한 시대적 분위기와는 달리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거기다가 그 그곳의 몸집이 큰 주인 아주머니는 마음 씀씀이가 무던하여 누구에게나 잘 대해주었으며, 술시중을 돌던 아가씨들도

한결같이 마음씨가 고왔으니, 향아리 집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주인에 그 아가씨들'이라고 좋아하면서 부담 없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 집 사람들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나처럼 세상에 맞서다가 수사기관에 수배되고 쫓기는 사람들에게는 살벌이보다도 더 정담게 대해 주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랬을까? 술도 몇 잔 제대로 마실 줄 모르고 허구한 날 수사기관에 쫓기는 몸인 내가 어느 때부터인

내 마음의 물랭루즈

지 향아리 집에 드나들었고, 그 집 아주머니와 종업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피를 나는 누이들처럼 나를 감싸주었으며, 나를 숨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숨어다니면서 굶지 말라고 내 주머니에 돈까지 넣어주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낮에는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못사람들 속에 섞여서 숨어다니다가도 밤늦은 시간이면 마치 내 집을 찾아가듯이 광화문의 향아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눈물겨웠다. 그럴 때면 분명히 그들은 내 가족이었으며 친구였고 동지였

다. 어쩌면 그들은 혈혈단신 내동맹이 처진 내 몸을 건져주고, 낙심과 절망에 시드는 내 영혼에 숨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그 출고 어두운 시절에 광화문의 그 술집은 내 마음의 물랭루즈였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들과 헤어졌다. 하루아침에 내가 검은 천에 눈을 가리우고 두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어디론가 끌려가고, 죽음의 집인 감옥 안에서 몇 번의 슬픈 겨울을 보낸 뒤에 서울에 돌아와 보니, 광화문 그 향아리 집 부근은 재개발의 이름으로 속대밭이 되었으며, 단 한 채의 기와집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향아리 집의 주인 아주머니라든지 종업원들의 종적도 찾을 길이 없었고, 나 역시 또 다른 과도에 연거푸 휘말린 탓으로 한 번도 그들을 찾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다가 지금에 이르고 말았다.

그래서일까? 나는 언제나 그 술집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들던 서글픈 노랫가락과 찢가락 장단, 아가씨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까지도 나는 잊지 못한다. 당시에 그 집을 드나들던 다른 이들에게는 그곳이 그저 시중의 평범한 술집의 한 곳에 지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에게만은 그곳은 너무나도 정겨운 사랑의 집이었으므로. 그런 연유로 나는 그때 광화문 그 향아리 집을 지금도 그리워한다. 다시 보고 싶다. 내 마음의 물랭루즈, (시인·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 낙관할 수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기공식이 오늘 정오쯤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개최 예정인 여수 신항에서 열린다. 기공식을 계기로 총 13개 전시관과 엑스포 타운 등 세계박람회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사도 본격화된다. 엑스포 타운은 현재 약 70%의 협의보상을 마쳤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6천 규모의 수조가 설치되는 아쿠아리움은 연구·교육 중심형으로 조성된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대규모 행사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스포츠 장르에 국한되는 행사라면 엑스포는 경제와 사회·정치·문화를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판의 크기가 다르다.

환경엑스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된다면 단순한 박람회가 아니라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여수와 전남의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세계박람회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다. 전남 도민이나 여수 시민의 행사가 아닌 인류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다.

민자 유치 역시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숙박인 해소를 위한 대형 호텔 호텔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직 시 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보다 많은 나라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중국은 내년 상하이엑스포를 국가발전과 관광유치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기 위해 법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여수 세계박람회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지원에 앞장서야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낙관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의 '30억弗 수출탑' 패거

현대삼호중공업이 오늘 제4회 무역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최초로 '30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한다. 현대삼호중의 이 같은 패거는 10년 전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룬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대삼호중의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수출 실적은 34억 3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1년 4억달러, 2002년 7억달러, 2004년 10억달러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수출액이 불과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최근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을 감안할 때 엄청난 선전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삼호중이 10년 만에 부도회사에서 최우량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젊고 우수한 인력과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성원 평균 연령이 38세로 타 동종업계보다 7년 가량이나 젊어 젊은 기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꾸준한 투자로 3차원 입체설계 및 자동화 로봇 도입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점도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만능적인 노사분규 사업장에서 지난 2007년 이후 3년 연속 무분규 교섭타결을 이끌어 낸 선진화된 노사문화도 현대삼호중이 세계 조선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이 오늘의 현대삼호중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된 것이다.

현대삼호중의 30억弗 수출탑 수상은 낙후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조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삼호중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 '세계 제1위'의 조선업체로 우뚝 솟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가 바란다.

기고

김용하



지난 11월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 3월 13일에 열린 전국시도지정 개최를 시발점으로 하여, 총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1차년도 결과 발표였다.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계

서 여러 줄 세우기의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미래 선진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점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추진과제는 첫째, 재능진단육성, 둘째, 교실수업지원, 셋째, 학생자율학습지원, 넷째, u-러닝 인프라구축 등 모두 네 영역이었다. 특히 학생 개인의 잠재적 재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학교교육을 교과지도를 물론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과정에도 비중을 두며, 학습자 주도적 학습 역량

새 교육 패러다임 정착 기대한다

발함으로써, 그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문용린교수는 기초발표에서 우리에게 낮익은 수영의 박태환과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를 비롯한 세계에 이름을 떨친 19명의 한국출신 21세기의 신 천재들의 종단 추적연구를 결과를 인용하여,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공동점과 시사점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잠재력이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잠재력보다 높았으며, 이 잠재 능력을 일찍 발견하여, 10년 이상 한 분야에만 전념, 몰두한 노력의 결과이며 부모,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지원과 관심 등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단순교육의 선도아래, 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개발 추진한 프로젝트가 잠재적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발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예견하고, 지금까지의 학력중심의 한 줄 세우기에

을 u-러닝 교육체제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교육방식으로, 이는 광주지역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근래 각 대학에서 앞다투어 실시하려 하는 입학사정관제나 다양한 입시제도에 부응하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일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지속적인 탐구와 그 재능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교사들의 능력 배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시 교육청 산하의 교육자들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다른 의견의 불비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활력 동시의 빛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광주고등학교 교장·수필가)

기고

위길환



최근 우리 시가 민자를 유치해 동명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무성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구장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동구장 인근 실체도 없는 주택단지 개발이 적정화나에 대한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민들이 신도시건설이 재개발시장의 침체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 라는 위기의식으로, 지난 2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동구장 인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도시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전수요에 의존한 재개발보다는 인구 유입에 의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도시성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동구장은 인근에 워터파크, 공예산업단지, 세계음식타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계획해 스포츠

동구장과 도심 재개발

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계획이 없다는 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우려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들의 우려는, 동구장 인근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신규 주택의 추가 공급으로 이어지면, 한정된 이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 기존 도심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하고 결국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던 해당 주민들의 꿈이 멀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다수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며, 재개발 사업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주택시장을 볼 때 미분양 주택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지난해 한 때 1만3천200여 세대까지 증가한 미분양 아파트는 지금 5천700여 세대로 줄어들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또한 분양 전망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가 결정되게 되므로 주택경기엔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 지역 역시 국내의 주택경기의 흐름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여건이 호전

레저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각종 스포츠와 레저, 문화,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때 도시의 활력이 증대되고 기존 도시의 재개발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기능이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레저관광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개발지와 도심이 상생하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재개발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민간 투자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시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좋은 계획을 무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보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동구장,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동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주시 도시건축국장)

無等鼓

아라비아만(灣) 연안의 도시국가인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을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다. 면적 3천85km², 인구 150만명의 이 작은 상업 도시는 최근 수 년 동안 세계의 주목을 사로잡았다. 수천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국가개조사업을 씬없이 추진해온 덕분이다.

세계 최대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 삼성 건설이 시공을 맡아 우리에게도 친숙한 세계 최고 빌딩 '버즈 두바이' 등 지난해 4월 현지에서 목도한 두바이 신화는 경악 그 자체였다. 사막 한가운데 돌출된 세이크자이드 로드 양쪽엔 50~60층 높이의 마천루가 즐비했다.

진주조개잡이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중동 벽지의 작은 어촌 마을 두바이가 물류와 금융, 관광의 허브로 성장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들의 상상력과 추진력, 속도는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두바이와 같은 금융허브를 만들자며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두바이 정부는 지난해 사실상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을 선언했다. 투자자금을 해외차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데다 제조업 기반 없이 부동산과 건설·금융 부문에만 집중해온 여파다.

두바이의 갑작스런 추락에 세계 금융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막 위의 기적'을 일궈낸 찬사는 순식간에 '도래성 위의 신기루'였다 는 조롱으로 바뀌고 있다.

두바이의 성장 전략은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와는 대조된다.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UAE에서 95%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아부다비는 되레 오는 2015년까지 화석에너지

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탄소 제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물리학이나 제논이 기로에선 신부인 사메만 지켜보며 이를 모체로 삼아온 우리 정부도 교훈을 찾아야 할 때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

두바이 신화



결혼식 피로연 음식도 '원산지 표시' 해야

며칠 전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에 갔다. 결혼식이 끝난 뒤 임시로 마련된 교회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느 결혼식처럼 출장 뷔페를 준비했다.

그런데 몇몇 하객들이 접시를 들고 오가면서 "이건 원산지를 알 수가 없어?"라며 약간 불평을 했다. 불만을 들어보니 틀린 지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뿐 아니라 집들이 할 때, 돌잔치나 백일잔치 등 출장으로 오는 뷔페 음식은 그 식사에 원산

지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식당과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출장 뷔페의 모든 음식의 원산지를 식당 벽 쪽은 게시판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2동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제각각...규제 필요

은행 창구에 가면 신용대출 금리라고 알려진 것과 실제 영업창구에서 적용하는 금리의 차이가 커서 화가 난다. 며칠 전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최저금리가 연 5.95%라고 알려준 은행이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연 8%대의 대출금리를 제시했다.

이 직원은 신용등급이 평균 이상이라도 실제 적용을 받는 대출이자는 고시 금리보다 2~3%포인트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은행은 CD,

즉 양도성에증서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일정한 마진을 붙여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을 낸다고 한다. 이때 마진이 가산금리인 것이고 결국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일수록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커지는 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가산금리를 몇대도 정하도록 놔둘 게 아니라 은행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 혹은 표준안을 만들어 지키도록 유도해 주기 바란다.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